

## LESSON 07 The Formation of Earth (지구의 형성)

### NEW WORDS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billion	10억	2. gigantic	거대한	3. formed	형성된
<input type="checkbox"/>	4. tight	탄탄한	5. squeeze	꽉 죄다	6. bit	작은 조각
<input type="checkbox"/>	7. harden	굳어지다	8. heat	열	9. fiery	불같은
<input type="checkbox"/>	10. clue	증거. 단서	11. clump	응집되다	12. planetesimal	미행성체

### NEW EXPRESSIONS

한국어감추기

<input type="checkbox"/>	1. round and flat	둥글고 편평한	2. square like a block	벽돌 같은 사각형의
<input type="checkbox"/>	3. cloud of dust and gas	먼지와 가스 구름	4. the newborn Sun	새로 태어난 태양
<input type="checkbox"/>	5. formed from ~	~로부터 형성된	6. as it cooled	그것이 식었을 때
<input type="checkbox"/>	7. bit by bit	조금씩 조금씩	8. flowing from it	그것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 READING



- Reading 1 Why is the Earth shaped like a ball? Why isn't it round and flat like a pancake or square like a block? Why does it spin? And why does it whirl around the Sun?
- Reading 2 Most scientists think the answers lie in the Earth's beginning. They think it began billions of years ago with a gigantic, spinning cloud of dust and gas in space. Dust and gas whirling around the newborn Sun started to clump into balls called planetesimals.
- Reading 3 The Earth was one of the balls that formed from the dust and gas. As the Earth's gravity pulled in more and more dust and gas, everything squeezed together, tighter and tighter. The ball grew hotter and hotter. It became a red-hot ball called the Earth.
- Reading 4 The outside of the Earth didn't stay hot. The melted rock cooled. As it cooled, it hardened. It became a ball of hard rock and metal, as it is today.
- Reading 5 But the inside of the Earth never cooled. The center of the Earth is fiery hot. Heat is always flowing from it, and parts of it are still melting. Bit by bit, we are finding new clues about the Earth's beginning. But nobody really knows exactly what happened.

### 해석

- Reading 1 왜 지구는 공 같은 모양일까요? 왜 그것은 팬케이크 같이 둥글고 편평하거나, 또는 벽돌 같이 사각형이 아닐까요? 왜 그것은 돌까요? 그리고 왜 그것은 태양 둘레를 돌까요?
- Reading 2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대답이 지구의 기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거대하고, 빙빙 도는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는 그들과 함께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태어난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먼지와 가스는 미행성체라 불리는 구체들로 응집하기 시작했습니다.
- Reading 3 지구는 먼지와 가스로 형성된 구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먼지와 가스를 점점 더 잡아 당겼을 때, 모든 것들은 더 탄탄하게 꽉 죄어졌습니다. 그 구체는 점점 더 끄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지구라 불리는 빨갛고 끄거운 구체가 되었습니다.
- Reading 4 지구의 바깥은 끄거운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녹은 바위는 식었습니다. 그것이 식었을 때, 그것은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바위와 철의 구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처럼요.
- Reading 5 그러나 지구의 안쪽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불같이 뜨겁습니다. 열은 항상 흐르고 있고, 그것의 부분들은 여전히 녹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지구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